

일본 건축의장에 나타난 아르데코 연구

A Research of the Art Deco in Japanese architectural design

서 민원

Min-Won Suh

남 경 숙

KyungSook Nam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부교수

Hanyang University, Interior Design

## 일본 건축의장에 나타난 아르데코 연구

### A Research of the Art Deco in Japanese architectural design

서 민원  
Min-Won Suh  
남 경숙\*  
KyungSook Nam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과 부교수  
Hanyang University, Interior Design  
\* corresponding author

중심어 : 아르데코, 근대, 일본  
건축, 건축의장  
keyword : Art Deco,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 목차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근대 일본 아르데코 건축의장의 배경
    - 2.1. 근대 일본의 시대적 배경
    - 2.2. 근대 일본 건축환경
    - 2.3. 스키야 건축
    - 2.4. 근대 일본의 미학과 장식성
    - 2.5. 일본의 철공예
  3. 아르데코 양식
    - 3.1. 아르데코의 개념
    - 3.2. 아르데코의 특성
      - 3.2.1. 철근콘크리트조의 사용
      - 3.2.2. 기하학적인 양식
      - 3.2.3. 색채와 재료
      - 3.2.4. 지그재그형과 유선형
  4. 일본 아르데코 양식의 특징
    - 4.1. 분석 대상
    - 4.2. 분류체계 기준틀 및 분석방법
    - 4.3. 일본 아르데코 건축의장의 분석
      - 4.3.1. 아르데코 양식적 표현
      - 4.3.2. 아르데코 형태 및 장식성 표현
      - 4.3.3. 아르데코 재료 표현
      - 4.3.4. 아르데코 색채 표현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ubject is about the research of Japan Art Deco in the aspect of architectural design and the characteristics, which appeared and dominated the field of design before and after 1920-1930s in Japan. Study method is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reference and gathering data through field trip. In order to carry out this subject, this study will research following factors. First, the background of Japan Art Deco architecture style was studied. Second, factors related to Art Deco such as the concept, aesthetics, design characteristics. Third, the case studies of Japan Art Deco Architectural design were researched by the expressive factors which were divided by style, form, material and color. As a result early style had compradore style about 1900, later reactionism prevailed of 1920 affected by European Art Deco. Skyscraper style was built and architecture developed with racial characteristics. It has vertical and streamline form of typical Art Deco in architectural expression, contrast with different material in material expression, as using highborn and brilliant color in color expression. What the research is able to classify, understand and validate Japan artistic and socio-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better appreciate the life philosophy of Japan and re-discover their basic roots through examination. Though it began as a Western cultural movement,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iscover the inherent orientalism in its basic formative spirit.

#### 요약

본 논문은 건축의장 측면에서 본 일본 아르데코에 관한 연구로 1920-1930년대를 전후하여 나타났던 아르데코 디자인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을 통한 이론적인 고찰과 현지답사를 통한 자료 수집의 연구 방법을 수행한다. 논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요소들을 연구한다. 첫째, 일본 아르데코 건축의장의 배경을 연구한다. 둘째, 아르데코의 개념, 미학, 디자인 특성들을 연구한다. 셋째, 양식, 형태, 재료 그리고 색상으로 나누어진 표현요소를 통하여 일본 아르데코 건축의장의 사례를 연구한다. 결과적으로 1900년대에 외랑식을 가졌고, 1920년대에 유럽 아르데코에 영향을 받아 복고적인 양식이 보급되었다. 초고층 양식이 건축되었고 건축의장은 민족적 특징과 더불어 발전되었다. 건축의장적인 표현에 있어서 아르데코의 수직적이고 유선형적인 양식, 다른 재료의 대조, 밝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철학적인 삶을 잘 이해하고 근본을 재발견하여 일본의 예술적이고 사회적인 유산을 분류, 이해,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서양 문화에서 시작하였으나, 바탕의 조형적인 정신세계에는 동양이 근본으로 내재되었음을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한다.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산업화 이후 서구문명에 대한 관심이 일고,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용과 더불어 근대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대안을 동양의 문화와 사유체계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의 동·서양의 개념이 서양의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 왔고, 지난 세기동안 동양이 서양의 문명에 의해 침식당해 왔듯이, 동양은 새로운 세기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시금 그 문화의 고유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의 근대화는 안정조약(安政條約, 1854)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와 국제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루어져 서구의 건축이 보급 되어졌다. 이제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아르데코는 하나의 장식적 요소로만 치부되어 하나의 건축의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동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르데코에 대한 평가도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양에서 아르데코적 현상이 가장 돋보이는 일본의 아르데코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근대 일본 건축의장에서 나타나는 아르데코의 특성을 통해, 일본 아르데코의 형성과정과 그 표현특성을 찾고자 한다. 또한 동양으로부터 유입된 서양의 아르데코적 요소들이 다시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은 개항 직후에 서양 건축의 직접적인 영향을 통해 시작된 양식적 변화가 시작되며 아르데코적 특성을 가진 건축물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1930년대를 전후한 건축물로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적 배경연구와 건축물 사진을 분석하고 현장 답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이들의 건축과 실내에 나타난 의장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 연구의 중요한 내용이다.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외관의 조형성 및 실내에서의 장식성의 비교 분석 내용을 통하여 일본의 아르데코 특성을 연구한다. 이는 양식, 형태 및 장식, 재료, 색채 등의 표현요소를 통하여 초기에는 어떠한 형태로 전해졌으며, 어느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나타났는지 그 후 일본의 민족성이 건축과 장식에 어떻게 가미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 2. 근대 일본 아르데코 건축의장의 배경

### 2.1. 근대 일본의 시대적 배경

일본에 서양건축의 전래는 17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토요토미(秀吉)는 그리스도교를 탄압했고, 1639년에는

쇄국령이 반포되어 서양의 문물은 나가사키의 한 부분을 통해 유입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서양의 여러 나라가 동양에 진출하면서 방어의 목적으로 서양의 학문을 점차적으로 군사화 과학화 했으며, 청동제 대포를 주조하기 위해서 내화벽돌을 만들어 반사로를 축조하였다. 이것은 일본에서 최초의 벽돌건물이라 하겠다. 고로의 발달로 제철소가 세워지고 철의 발달로 공장이나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현재에도 현존하는 가고시마의 쿠후코슈엔이칸(尙古集成館)으로 석조 지붕과 서양식트러스 건물이 세워졌다. 개방으로 연 항구에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요코하마 요코스카(橫濱)클럽 호텔(1863년), 시나가와(品川) 5개 공사관(1862년), 엔료간(延瀋館:1863년) 등의 각종 시설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시설들은 서양식 평면과 외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가사키에는 다이우리(大浦 天主堂:1862-1864년) 등의 교회당도 건립되었다. 이처럼 에도시대에는 일본의 건축기술에 외관만 서양식 건축으로 만들어졌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74년에 워트루스가 정부의 고용기사로 입국하는데 메이지 정부가 중앙관청 건물을 건축하면서부터 외국건축가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1877년에 영국인 '조사이아 콘돌'이 입국해 공무성에서 건축 설계를 하면서 공학대학교에서 많은 건축가를 양성하였다. 본격적으로 서양건축이 세워지기 시작하였으며, 메이지 45년간은 공학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의해 뛰어난 서양건축 기술을 습득한 시기이다.<sup>1)</sup>

### 2.2. 근대 일본 건축환경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개항을 하면서 건축환경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면과 또 하나는 표현적인 면으로 나눈다. 이전의 붉은 벽돌조와 석조를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점차 철근 콘크리트조와 철골조로 전환하게 된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내진성이 고려되지 않았던 철골조는 현저하게 피해를 보았으며, 그 예로 「마루센(丸善)빌딩(1919)」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다. 반면에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보강된 철골조는 강도가 특별하였다.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라면 구조를 채용한 엔도 오토(1865-1943)의 미즈이 물산 요코하마 지점 제일회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의 건축은 근대주의 그 후 절충주의의 뒤에서 구조 기술적으로 성숙해 나간다. 즉 양식으로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신진의 내진 기술자인 사노 토시타카(1880-1956)의 설계에 의한 일본 최초의 철골 커튼월에 의한 마루센 서점에서는 그의 급진적인 과학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식은 부가되고 구조는 숨겨져 있었다. 이후 타이쇼기부터 쇼와기에 걸

1) 박언곤, 일본의 건축사, 도서출판 발언, 1994

친 철골,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도시 건축 일반은 장식과 구조(숨은 구성)라고 하는 세트에 의한 설계가 일반적이었다.

일본 근대에 있어서의 서양식 건축은 이러한 골조 안에서 성숙해 갔다.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가와 구조 설계를 담당하는 구조가라고 하는 직능을 분리하기 시작하였다. 쇼와 초기도 도시 고층건축에 대해 장식적 부분은 간신히 모습을 감추고 있었지만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쇼와 10년대에 유행한 제관양식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대 건축 위에 일본적인 대 지붕이 장식적으로 부가되었다. 즉 근대주의 환경을 전제로 하면서 일본적인 독자성을 표현하기 쉬웠던 것이다. 결국 여기에 보이는 것은 「히나가타」 주의(건본, 모형의 의미)의 나머지였다. 규격화된 공업제품이 근대 건축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던 시대에 일본식 표현은 장식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종합적인 양식으로서의 일본의 근대주의 생활환경은 나타나기 어려웠다. 구조 기술에 대립해 결정된 신진 건축가들의 분리파(타이쇼 9년(1920)) 전부터 소수파의 아방가르드(전위)들에 의해서 담당해졌던 것이다. 당시의 근대주의 생활환경의 대표인 츠치우라카메키(1897-1996)의 집, 분리파인 호리그치스테미(1859-1984)의 와카사저(쇼와 12년(1937), 도쿄) 등을 들 수가 있다.

### 2.3. 스키야 건축

일본 근대에는 당연히 서양 절충주의 건축 후에 융성한 근대주의 건축 이외의 계보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 가장 큰 것은 일본의 전통 건축의 흐름이다. 그러한 안으로 한층 근대와의 접점을 가진 건축 양식으로서 ‘스키야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근대 초기에 발생한 ‘스키야풍’건물은 다실을 발생의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확고한 양식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격식으로는 주 양식이었다. 또한 서원 구조에 우아하고 시골풍 나는 분위기를 덧붙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담당자인 상류의 스키야자들은 기존의 건축 시스템(서원 구조)에 의존하면서 잉여로서의 스키야적 부분을 건축 표현에 가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스키야자의 가계이기 때문에 더욱 ‘스키야풍’건물의 수법은 메이지 이후 밀려들어 온 서양적 문맥(말하자면 새로운 서원 구조)으로도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흐름은 현재 근대 ‘스키야’라고 총칭되었다. 쇼와 전기의 근대 ‘스키야’에 있어서의 양식적 전개에는 몇 개의 과감한 시도가 있었다. 전후의 근대주의 건축의 대두에 의해서 전통과 근대를 둘러싼 이 테마는 일순간 망각되게 되었지만 본격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않았다. 동시에 전후에 있어서의 근대 ‘스키야’ 표현은 요시다 호리구치에 가세해 앞의 건축가 무라노토우

고 양식의 혼재 병존을 주장한 오오에 히로시(1913-89)들에 의해서 한층 더 전개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근대 건축과 ‘스키야’건축과의 단절성과 동일성은 해결 할 수 없는 모순이기도 했다.

### 2.4. 근대 일본의 미학과 장식성

일본의 미학사상은 외래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재창조적인 특징을 보이며 일본인의 주동적 변용은 일본미술의 특징이며, 나아가 일본인이 지니고 있는 조형적 의식의 특질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미술사의 효시인 오카쿠라 텐신은 “외국으로부터 문물을 들여와 오히려 그 문물의 모국보다 월등함을 보이는 적응력의 풍부함”을 지적하였고, 야시로 유키오는 ‘일본미술의 특질’에서 “일본이 타국예술을 받아들이는 경우, 쉽게 그것에 빠져들고 심취하여 모방하면서도 실은 그 후에 치열한 주관적 반동으로 이를 충분히 변안하고 해체하여 자기에게 적합하도록 바꾸는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고 하였던 것이다. 야시로 유키오는 ‘인상성(印象性)’, ‘상징성(象徴性)’, ‘감상성(感傷性)’, ‘장식성(裝飾性)’의 네 가지를 일본미술의 특질로 꼽아 설명하였다. 인상성이라 함은 자연의 객관적 진실 보다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주관적 인상을 진솔하게 표현하려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징성이란 개념으로 무로마치시대의 수목화나 다도, 문인화 등에 깃들여 있는 정신적인 측면을 표현하였다. 한편 감상성이란 특질은 에도시대 말엽 일본정신의 탐구에 매진하였던 사상가 모토오리 노리나가 일본문예의 전통 이념으로서 주창한 “모노노아와레(物の哀れ)”와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노노아와레란 자연이나 사물의 여러 모습에서 촉발되어 느껴지는 애뜻한 정감을 가리키는 것이다. 감상성은 일본미술에서 느낄 수 있는 정감성과 정취성 등 주정적 측면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고, 이는 일본문화 전반에 들어나는 특질이기도 하다. 쓰지 노부오는 일본 미술 특질론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 조형의식의 특질을 장식과 유희의 두 축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sup>2)</sup>

### 2.5. 일본의 칠공예

일본에서는 칠 예술을 전통 습관상 “칠예(漆藝)”라 칭(稱)하고 있는데<sup>3)</sup> 일본의 칠공예는 칠 나무가 분포하는 중국, 한국, 일본, 타이, 미얀마 등 여러 나라에서 옛날부터 성행하였다. 일본의 칠공예도 고분시대의 부장품 가운데에 칠 제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는 오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하는 공예품으로서는 범룡사의 다마무시노즈시가

2) 쓰지 노부오 지음, 이원혜 옮김, 일본미술 이해의 길잡이, 시공사, 1994, pp.18-20에서 재인용

3) 橋十光, 중국 칠화예술에 대한 재론, 윗칠관련학술대회집, 배재대학교 칠 연구소, 1998, p.8.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치고 있다. 나라 시대(奈良時代:710~784)에는 당(唐)의 뛰어난 공예기술과 제품이 전해져 일본칠공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원래 철은 견고성이 갖추어져 있어 기물을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장 액이다. 이러한 철의 특징을 알게 된 중국인은 거기에서 지속성, 영속성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의미의 칠문화는 서양으로 도입된 후 서양 아르데코의 대표적 마감재료 중의 하나로 칭송되었는데 이것이 일본의 생활용품에서도 보인다. 에도시대(1603~1867)에는 의장도 세련되어지고 칠공예가 일반에 널리 보급되었다. 이 시대에 한국의 나전기법이 일본에 전해져 크게 영향을 주었다. 후기에는 막부뿐만 아니라 각 번(藩)에서 산업으로 장려하고, 공인(工人)을 보호하였으므로, 각 지방의 특색 있는 칠공예가 발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5)</sup>

### 3. 아르데코 양식

#### 3.1. 아르데코의 개념

제1차 세계대전(1914-1918)과 2차 세계대전(1939-1945) 사이에 있어 광범위하게 유행되었던 아르데코 양식은 대개가 역사적이고 그 시대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방대하고 다양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하여진 양식이었다. 아르데코의 장식적 어휘는 옛 바빌로니아 신전의 무늬, 생활의 조급하고 열광적인 속도를 잠재적 은유로 나타낸 것으로 모서리의 기하학적인 형태와 표현 등을 통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이국적인 경향을 받아들여 이집트와 아즈텍 예술에 대한 열광이 건축과 장식예술에 널리 퍼졌다.<sup>6)</sup>

베비스 헬러(Bevis Heller)에 의하면 “아르데코는 1920년대에 발전 1930년대에 절정에 달한 양식으로 아르누보(art nouveau), 입체파(cubism), 러시아 발레, 바우하우스 등의 다양한 원천에 의한 절충주의 및 고전주의 양식으로 대칭과 기하학적 직선이 주요 오브제를 이루고 있다. 재료는 철, 철근 콘크리트, 플라스틱, 유리 등의 도입과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체제에 디자인을 적용시키려 한 운동이다.<sup>7)</sup>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 각국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미적인 면보다는 실용적인 면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유행한 실용적이고도 대중적인 양식을 의미한다.<sup>8)</sup> 아르누보의 뒤를 이어 대량 체제가 전개될 무렵 아르누보 양식을 계승, 발전시킨 장식예술운동(decorative art movement)으

로 1925년 파리 국제박람회를 시작으로 하여 미국에까지 영향을 주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확산된 그 시대에 절정에 달한 양식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 3.2. 아르데코의 특성

##### 3.2.1. 철근콘크리트조의 사용

아르누보 양식은 이제까지 서양의 전통건축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석재의 건축이고 철은 기둥이나 보의 자립이라는 점에 보조 구조재로서 사용되고 조형성은 철이라는 가연성을 지닌 재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아르데코 건축은 거의 대부분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있으며 그 마무리는 벽돌, 타일, 테라코타, 몰탈세공에 의한 조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아르데코는 건물 표층의 조형이라 할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는 어디까지 돌의 대응이며 그 재질감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 노출된 콘크리트 자체의 가공은 용이하지 않았으며 될 수 있는 한 그 추한 것을 감추려 하였다. 아르데코는 그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건물의 구조와 분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최초의 스타일이다. 건물의 외관의 정면은 좌우대칭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기둥은 대부분은 플루팅(fluting) 친 원주나 각주로 주형을 가진다.

##### 3.2.2. 기하학적인 양식

아르데코에 나타난 선은 20세기 초 공업적 생산 방식을 이전의 수공예적인 소용돌이치는 곡선(Interlacing Curve)과 타협한 기능적이고 고전적인 직선미(Sleek Line)를 추구하였다. 기하학적인 형태들의 강조로 유선형과 추상적인 자연적 형태들을 기하학적인 양식으로 표현했다. 이들은 아르데코의 상징적인 선인 버스트, 지그자트로 표현된다. 기하학적 형은 형태의 본질에 접근하여 단순함을 추구하는 자연적인 결과이지만 아르데코의 다른 중요한 면은 유선형으로 미래파와 같이 기계의 완벽성에 매끄러운 선을 특성으로 갖게 된다.<sup>9)</sup>

##### 3.2.3. 색채와 재료

주로 나타나는 색채는 크게 강렬한 원색과 금색, 은색, 파스텔색이 주조를 이룬다. 아르데코의 강하고 단순한 형태는 원시적인 색채와 날카로운 대비를 가진 색채에 적합하다. 이러한 색채들은 개성이 강하게 확실하게 배색되어 보여진다. 특히 검정색은 아르데코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색이다. 금은색은 다른 색과 배색되어 강하게 대비를 이루며 현대적이고 대담한 느낌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용된 재료는 이국적이며, 희귀하고 값비싼 상아, 흑단, 진주, 암모니아나무, 대리석, 젤루첵, 뱀가죽, 고급 피지 등

4) 두산 세계대백과 EnCyber, 2001년판, p.206

5) 김기숙, 건축형성기법을 이용한 칠공예, 전북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논문, p.16

6) Penny Sparke, 1990, p.116

7) 김문덕, “아르데코의 과거와 현재”, 월간 건축과 환경, 1987.6, p.35

8) Harold Osborne, The oxford companion to the Decorative Arts, 1975, p.44

9) D. Klein, In the Deco Style, 1986, p.10

으로 우아함과 화려함을 나타내었다. 여기에 스텐레스 철강과 광택 나는 동, 유리, 크롬과 철, 콘크리트, 플라스틱 같은 새로운 산업재료가 병행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재료의 사용으로 짜즈에서 파생된 리듬과 역동주의, 기차의 속도와 자동차의 매력, 공기 역학을 고려한 유선형의 발견 등에서 영감을 얻은 과학의 지적인 미를 대량 생산의 요구에 적합하게 디자인하여 사용하게 되었다.<sup>10)</sup>

### 3.2.4. 지그재그형과 유선형

1920년대의 지그재그(Zigzag)형은 1920년 라디오 방송의 시작에 의한 전파의 이미지, 1922년에 카터의 투탄카문(Carter의 Tutankamun)무덤의 발견에 의한 이집트 양식, 프리 콜럼비아(Pre-Columbia)문명의 피라밋 모티브 등의 혼성적인 결합에 의하여 탄생된 형태이다. 모가 난 패턴, 추상화된 식물, 동물 모티브, 강렬한 햇살, 점성술의 이미지, 형상화된 분수와 모자이크와 관련된 것들과 빌딩의 외관(Exterior), 내부(Interior), 양각과 벽화의 형태, 지그랏트(Ziggurat)형태(정상을 향해 진보적인 작은 단계로 물러가는 형식)의 기하학적이고 형상화된 장식성을 시사하고 있다. 1929년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지그재그형 대신에 유선형 및 수평선의 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유선형은 1930년대 수평선(Stramlined Modern) 스타일로서 미래파가 보여주는 공기 역학적 형태와 속도로 알려진 형태이다. 즉 당시 공학기술의 상징이었던 자동차, 기관차, 비행기, 기선이라는 교통수송기관에 보다 속도감을 부여하기 위한 형태적인 연구에서 유선형이 제안되어졌다<sup>11)</sup> 1930년대 후반에 유선형의 형태는 현대적이고 능률적이며 청결한 모든 것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아르데코 표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표현요소별 특성

형태 및 장식	· 지그랏트(ziggurat) · 지그재그(zigzag) · 단순 기하학적 형태 · 갈짓자 무늬 · 힘차고 정열적 모습	· 인체의 누드 · 8각형의 형태 · 유선형(streamline) · 호형 · 꽃의 가지 무늬
재 료	· stone brick · terracotta · 광택있는 금속(유리, 동, 크롬, 스텐레스, 철강) · 유리블럭, 플라스틱 등의 합성수지 · 간편하고 순수함을 표현	
색 채	· 아프리카 예술의 영향 - 원시적 색채(빨강, 검정) · 대중이 추구하는 우아하고 화려한 색채 (금색, 녹색 자주색, 오렌지색)	

10) Laura Cerwinske, 1981, p.10

11) 스티븐 베일리, 손호철 역저, 인더스트리얼의 역사, 열화당, 1985, pp.35-36

## 4. 일본 아르데코 양식의 특징

### 4.1. 분석대상

아르데코 건축의장의 비교를 위한 선정 기준은 1930년대를 전후한 일본의 다양한 건축물 중에서 아르데코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 분석대상 건축물

	건축물	준공연도
주택	청목주택	-
	일본공업구락부	1920
공공건물	나라가와 현청본청사	1928
	요코하마지방재판소	1929
	고륜소방서	1933
	조향궁	1933
	국회의사당	1936
	애지즉시정본정합	1938
사무용 건물	정주문고	1917
	자유학원	1921
	구배관빌딩	1923
	시정회관	1929
	화광빌딩	1932
	경성정철	1933
	시타야 빌딩	-
필라델피아빌딩	-	
병원	성로가국제병원	1932
상업건물	복부시계청	1932

### 4.2. 분류체계 기준틀 및 분석방법

太田博太郎의 「일본 건축사」와 「일본 건축 양식사」, 鈴木博之의 「신건축, 건축 20세기 I, II」 등에서는 시대적 건축환경, 장식, 재료 등을 다루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헌고찰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분류 기준을 일본 아르데코 건축의장을 시대적 양식, 형태 및 장식, 재료, 색채 등의 분류체계로 나누었고 대상 작품의 건축환경의 표현요소 특성을 파악하였다. 아르데코적 표현요소의 특성은 이론적 배경의 분류 체계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 4.3. 일본 아르데코 건축의장의 분석

#### 4.3.1. 아르데코 양식적 표현

<표 3> 아르데코 스타일 분석

스타일	건물명			
외양식 매관 스타일				
	정주문고(1917)	자유학원(1921)	나라가와현 청본청사(1928)	조향궁(1933)
유럽식				
	시타야 빌딩	요코하마지방 재판소(1929)	화광빌딩(1932)	성로가국제 병원(1932)
마천 루식				
	시정회관(1929)	필라델피아빌딩		
민족성 가미식				
	국회의사당 (1936)	애지즉시정 본정합(1938)		

1920년대 일본은 미국의 리얼 타임의 풍조를 받아들일 정도로 국제화가 진행되어있었다. 초기에 나타난 것이 '화양 절충양식'인 외양식(外陽式, 매관식)의 건축양식을 띠었다. 이는 서양의 신고전주의의 역사적 절충주의 건축의 성격을 띤 것으로 일본에 서양식의 도입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향궁에서 보듯이 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나며 외관은 독일 표현주의를 따르고, 입체적인 조형과 큐비즘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유럽 아르데코의 주류를 이루었던 기하학적인 형태 보다는 아르데코 후기 경향에 해당하는 유선형적인 건물이 주류를 이루고 나타나고 있는데 성로가국제병원, 고륜소방서 등을 들 수 있겠다. 단순하면서 이국적이며 대중적인 성격을 띤 미국의 마천루식 아르데코를 시정회관, 필라델피아 등에서 볼 수 있다.

쇼와 초기에는 고층 건축에 대해 장식적 부분은 간신히 모습을 감추고 있었지만 점차 민족성이 가미된 양식이 유행하였다. 그 예가 국회의사당이다. 일본전통양식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지붕을 채택하여 아르데코적인 양식에 일본적인 요소를 가미하려 하였다. 이는 민족 가미양식인 제관양식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사당 이후 아르데코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모던건축으로 전환한다.

4.3.2. 아르데코 형태 및 장식성 표현

<표 4> 아르데코 형태 및 장식 분석

형태 및 장식	건물명			
유선 형				
	요코하마 지방재판소(1929)	시타야 빌딩	화광빌딩(1932)	
수 직 선				
	정주문고 계단	조향궁	신전교회	조향궁
단순 기하 형태				
	시정회관(1929)	필라델피아빌딩	자유학원명성관	
단순 기하 형태				
	자유학원	청목주택	자유학원 천장	

아르데코 건축의 선은 종전의 선과는 달리 확연하게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요소를 보여주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에 전형적인 화려함과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외관의 경우 수직선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실내의 경우 기하학적인 구성과 모티브의 사용이 많이 나타난다.

4.3.3. 아르데코 재료 표현

<표 5> 아르데코 재료 분석

재료	건물명		
재료의 솔직한 표현			
	정주문고(1917)		
재료의 통일성			
	자유학원(1921)	조향궁(1933)	국회의사당(1936)
광택 있는 금속			
	조향궁(1933)	전통빌딩(1934)	개인주택
유리			
	자유학원 천장	조향궁(1933)	라릭(1935)

일본은 유리 제작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판유리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구조적인 해결이 가능해진 모서리창이 등장하면서 건축물은 투명한 모서리의 확보로 새로운 개념의 표현요소를 가능하게 하였다. 마감도장 일부는 불투명 도장인 칠기를 사용하였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세련된 유미주의적 조형의식과 미적 감각을 중요시 여겼다. 조향궁 같은 건물은 아르데코의 전형적인 건물이며 크롬 장식의 문은 데스틸의 직선과 같은 기계시대의 역동적인 금속의 이질성을 잘 표현하였다. 또한 현관 유리문은 유리로 릴리프하여 만든 재료의 표현에서 솔직함을 보여주었다.

#### 4.3.4. 아르데코 색채 표현

<표 6> 아르데코 색채 분석

색채	건물명		
우아하고 화려한 색채			
	의재(1930)	조향궁 (소객실, 1933)	
이질적 색채			
	하마나카(1931)	두난드(1930)	조향궁 (2층 발코니, 1933)

아르데코의 색채는 우아하고 화려하며 강렬한 대비를 잘 보여준다. 동양예술의 부드럽고 미려함과 아프리카예술의 이국적 색채인 빨강, 검정, 그리고 금색의 전형적인 색채의 조합을 잘 나타낸다. 하마나카에서는 금색의 배경은 지구라트 형태나 다른 기하학적인 요소를 규정짓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조향궁 소객실과 차실에서 옷칠의 돔 천정은 동양적인 요소와 아르데코의 대비적인 색채를 발코니의 모자이크의 바닥은 강렬한 화려한 색채를 공간에 표현하였다.

### 5. 결론

일본은 18세기 후반부터는 석조 지붕과 서양식 트러스 건물이 설계 시공 되었고 일본에서는 안정조약(安政條約, 1854)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와 국제조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서구의 건축이 보급 되어졌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후 철근 콘크리트조의 건축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때를 전후에는 기둥을 늘어세우는 신고전주의 경향이나 로마네스크 등의 혼합된 역사주의 양식건축이 정주문고, 자유학원, 구배관빌딩 등에서 융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외관식 혹은 매관스타일로 불리운다. 유

선형으로 대표하는 유럽식 아르데코는 시타야 빌딩, 화광 빌딩, 성로가국제병원 등에서 보여지며 입면과 매스에서 장식표현양식이 다양화되었다. 건물의 기하학적 분절과 조형적인 구성이 새로운 건물외곽형태를 만들었으며, 입면에서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하여 형태적 구성을 이루었다. 미국식 아르데코로 대표되는 마친루 양식은 필라텔피아빌딩, 시정회관에서 보여졌다. 일본전통양식을 가미한 민족성가미 양식은 국회의사당, 애지즉시정본정함 등에서 나타났다. 형태는 유럽식 아르데코 양식의 건물에서 유선형의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마친루식에서는 수직선의 사용이 많았으며 단순기하학적인 형태는 창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단순 기하학적인 형태를 나타내었다. 건물입구, 지붕, 처마, 창 등의 부분과 같은 의장장식은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다.

실내에서는 유선형적인 요소에 기하학적인 단순성이 함께 보여지며 계단에 적용된 유선형이 주류를 이루고 단순기하학적인 형태로 공간을 표현하였다. 재료는 유리와 금속을 사용하여 재료가 가진 질감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나타내려 하였다. 색채의 사용은 우아하며 이질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려 하였다. 특히 조향궁은 아르데코의 전형적인 요소를 가진 공간으로 옷칠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에칭 글라스, 대리석 장식, 계단 장식으로 우아하고 이질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특히 옷칠의 경우 일본 아르데코 실내의 대표적인 마감 재료로 동양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시기 전후의 연관성과 자료의 미비함을 보충하여 시기를 재조명해야하는 향후의 과제를 남긴다.

#### 참고문헌

박언근, 『일본의 건축사』, 발언출판사, 1994  
 최종관, “채화칠기 제작기법, 옷칠기술”, 배재대학교 질 연구소, 1988  
 이종현, “아르데코 건축의 양식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김문덕, “아르데코의 과거와 현재”, 월간 건축과 환경 6월호, 1987  
 인테리아 사조 연구3, “아르데코란 무엇인가?”, 월간 인테리아 5월호, 1989  
 岡田陸彦, Art Deco in New York, SD8301, 1983  
 日本建築様式史, 太田博太郎監修 藤井恵介他10名、美術出版社, 1999  
 九朝香宮邸, 東京都庭園美術館, 財団法人東京都文化 振興會, 1999  
 アルデコと東洋, 1920~30年代 ーパリを夢みた時代、東京都庭園美術館, 財団法人東京都文化振興會, 2000  
 図説, 日本建築年表、太田博太郎監修 日本建築年表編集委員會、彰國社, 2002  
 アル・デコ様式, 朝香宮がみたパリ、東京都庭園美術館, 2003  
 アル・デコの建築, 吉田綱市, 中央公論新社, 2005  
 稲葉なおと寫真集, 「アル・デコ・ザ・ホテル」、稲葉なおと, (株) 求龍堂, 2006  
 Bevis, Hillier, The World of Art Deco, E.P. Dutton, Co. Inc, 1979  
 C. Robinson & R. H. Bletter, Skyscraper Style ; Art Deco New York,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5  
 Charles Rahn Fry, Art Deco Design in color, (New York : Dover Publications, Inc), 1980  
 Don Vlack, Art Deco Architecture in New York, Harper & Row, New York, 1974  
 Eva Webber, ART DECO in America, Exter Books, 1985



<표 7> 건축에서의 아르데코 분석

구 분		건물명															
사 진																	
건축명		정주 문고	시타야 빌딩	자유 학원	구배관 빌딩	필라델 피아 빌딩	나라가 와현청 본청사	요코하 마지방 재판소	시정 회관	화광 빌딩	성로가 국제 병원	북부 시계점	조향궁	경성 전철	고륜 소방서	국회 의사당	애지즉시 정본정함
양 식	초기 양식	0	-	0	0	-	0	-	-	-	0	0	-	0	0	-	-
	유럽식	-	0	-	-	-	-	0	-	0	0	-	0	-	-	-	-
	마천루식	-	-	-	-	0	-	-	0	-	-	-	-	-	-	-	-
	민족가미	-	-	-	-	-	-	-	-	-	-	-	-	-	-	0	0
형태 및 장식	유선형	-	0	-	-	-	-	0	-	0	-	-	-	-	-	-	-
	수직선	0	-	-	0	0	-	-	0	-	-	-	-	-	-	-	-
	단순 기하	-	-	-	-	0	0	-	0	0	-	0	-	-	-	0	0

<표 8> 실내 아르데코 분석

구 분		건물명									
사 진											
건축명		조향궁 (소객실)	조향궁 (2층발코니)	조향궁	조향궁	조향궁 (1933)	정주문고 계단	자유학원 명성관	자유학원 (1921)	하마나카 (1931)	두난드 (1930)
양 식	유럽식	0	0	0	0	0	0	0	0	0	0
형태 및 장식	유선형	-	-	0	0	-	0	-	-	-	-
	수직선	0	0	-	-	-	-	0	-	-	0
	단순 기하	0	0	-	-	0	0	-	0	0	0
재 료	금속 유리	-	-	-	0	0	0	0	0	0	-
	원시적	-	-	-	-	-	-	-	-	0	0
	우아 화려	0	0	0	0	-	0	-	-	0	0
색 채	이질성	-	0	0	0	0	-	-	0	0	0